

시험을 대비하는 문제집

1 문학과 삶에서 만나는 의미

(01. 운율, 비유, 상징의 즐거움)

본책 4~7쪽

- ① 의성어 ② 자장가 ③ 의인 ④ 별 ⑤ 길
⑥ 청소년

01 ④ 02 운율이 느껴지는 부분: 2연: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 6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 표현 효과: 리듬감을 느끼게 하여 시를 읽는 즐거움을 준다.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03 ④ 04 ④ 05 ③
06 ③ 07 ② 08 ⑤ 09 화안히 10 따뜻한 위로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주는 11 ③ 12 ③ 13 [A]에서는 땅에 돌아난 '파란 싹들'(원관념)을 '아이들'(보조 관념)에 직접 빚댄 직유와 사람이 아닌 '파란 싹들'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한 의인을 사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14 ⑤ 15 ④ 16 ④

- 01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징에 대한 설명으로, 이 시에서는 상징이 사용되지 않았다.
- 02 2연과 6연에서는 비슷한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시를 읽는 즐거움을 준다.
- 03 비유는 두 대상을 연결해 공통된 속성을 강조하거나 유사성을 드러냄으로써 표현하려는 대상을 더 생생하고 참신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비유는 두 대상 간의 유사점에 주목하는 것이지, 차이점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다.
- 04 ㉠ '하얀 이불', ㉡ '자장가', ㉢ '아이들'은 각각 '산과 들에 쌓인 눈',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 '파란 싹들'이라는 원관념을 빚대어 표현한 보조 관념이다.
- 05 1~4연에서는 봄눈이 내린 날 골짜기의 물소리만 나직하게 들리는 풍경에서 조용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나타나며, 5~8연에서는 봄눈이 녹은 자리에 파란 새싹이 돌아난 풍경에서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
- 06 이 시의 1~2연에서는 '될 수 있을까'라는 시구를, 3~4연에서는 '갖고 싶다'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 있는 존재에 대한 말하는 이의 소망을 고백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서 '별', '꽃' 등과 같은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교훈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 ② 이 시에서는 '~싶다'와 같이 반말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이 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율을 형성하여 시적 안정감을 주고 있으나, 수미상관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 ⑤ 이 시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말하는 이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을 뿐,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07 이 시에서 '별'은 내게 힘이 되는 존재이며(㉠), '마음 어두운 밤'은 말하는 이가 처한 힘든 현실을 암시한다(㉡).
| 오답 풀이 | 나. '꽃'은 내게 공감해 주는 존재이자 나를 포용해 주는 존재 등을 의미한다.
르. '길'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 등을 의미한다.
- 08 이 시는 비슷한 문장 구조나 같은 시구의 반복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는 반복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니다.
- 09 <보기>는 시적 허용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시에 쓰인 시적 허용은 '화안히'로, '환히'를 문법에 어긋나게 쓴 표현이다.
- 10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별', '꽃'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주는 삶을 소망한다.
- 11 ㉠은 하얀 들꽃이 눈물짓듯 웃어 준다고 표현함으로써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빚대어,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을 사용하고 있다.
- 12 (가)는 1연의 '봄눈이 내리더니'와 5연의 '해가 떠오르더니', 2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와 6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에서 같거나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나)는 1연과 2연에서 '될 수 있을까', 3연과 4연에서 '갖고 싶다'라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13 [A]에서는 봄눈이 녹은 자리에 돌아난 '파란 싹들'을 잠자리에 서 뛰어나온 아이들에 직접 빚대고 있으며(직유), 파란 싹들이 마치 사람처럼 왁자지껄 일어나 있다고(의인) 표현하고 있다.
- 14 <보기>의 '꽃'은 일상적인 의미로,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물이다. ㉠은 힘든 상황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포용해 주는 존재 등을 상징하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
- 15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 부분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 16 ㉠은 관용 표현을 인용한 부분으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타고난 존재이며, 완전한 인간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회의 문제점이나 그에 대한 해결책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추론하며 듣기)

본책 8~11쪽

- ① 정보 ② 의미 ③ 안전모 ④ 자신감 ⑤ 근육
⑥ 안전

01 ⑤ 02 ⑤ 03 ③ 04 ② 05 ② 06 지금 몇 시니?
07 ④ 08 ⑤ 09 학급 게시판을 함께 꾸미자고 부탁
10 ③ 11 ④ 12 ① 13 자전거 안전모의 무화
14 ④ 15 ⑤ 16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화자의 가치관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01 담화는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발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이다.

| 오답 풀이 | ① 담화에서 발화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② 담화 참여자의 표정과 몸짓은 말로 전달되는 내용을 보완하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담화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③ 담화에서 화자와 청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④ 상황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이므로 화자와 청자, 시간과 장소, 의도와 목적 등과 모두 관련이 있다.

02 어머니가 비가 온다고 말한 의도는 서현에게 우산을 챙기라고 하기 위함이다.

03 일상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정보와 담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들어야 한다. 상황 맥락은 시간과 장소 외에도 화자와 청자, 의도와 목적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과 장소만 고려하는 것은 화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04 (가)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미 영화관 앞에서 만난 상황으로, 여학생의 “화났어?”라는 말을 통해 남학생은 여학생이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05 일상적인 담화는 대부분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대화이므로 쌍방 간의 소통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06 두 상황에서 ㉠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몇 시니?”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가)에서는 “약속 시각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라는 의미로, (나)에서는 현재 시각을 묻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07 종하는 민서가 팔을 다친 것에 대해 물었을 뿐, 민서가 게시판을 함께 꾸미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았다.

08 ㉠은 과자를 먹겠다는 종하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거절의 의미를 지니고, ㉡은 많이 다쳤다는 종하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팔을 크게 다치지 않는다는 참을 만하다는 의미이다. 즉 ㉠과 ㉡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ㄱ. ㉠은 종하의 제안에 대한 거절의 의미이다.

ㄴ. ㉠은 거절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미안함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09 종하가 민서에게 내일 시간이 있는지 묻는 까닭은 내일까지 학급 게시판을 꾸며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므로 학급 게시판을 함께 꾸미자고 부탁하기 위해서이다.

10 이 뉴스 보도는 기자가 직접 겪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터뷰와 통계 자료를 통해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문제를 다루고 있다.

11 자전거 이용자와 대여소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으로 자전거를 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보도에서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실태 및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의도로 제시한 것이다.

12 ㉠은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로는 효과가 없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다.

13 기자는 이 뉴스 보도를 통해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의 실효성을 짚어 보고,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관련 법을 현재보다 실효성 있게 바꾸어야 한다는 자신의 의도를 전달한다.

14 이 담화는 설득 담화의 하나인 연설로, 화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15 이 연설의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품고 스스로 사랑할 때 더 강하고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생기며, 마음의 근육을 만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라)에서 화자는 현재 종합 격투기 세계 챔피언을 꿈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화자는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져 데뷔 경기 이후에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보아도 개의치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화자는 열다섯 살에 최연소로 데뷔 경기를 치루고 우승까지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화자는 자신을 종합 격투기 프로 선수라고 소개했을 뿐, 격투기 프로 선수를 가르친다고 하지는 않았다.

16 (다)에서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기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의 근육이 생겼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는 시험 직후의 사진을 ‘인생 사진’으로 제시하여 이처럼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2 정보를 판단하는 힘

(01. 요약하며 읽기)

본책 12~15쪽

- ① 정보 ② 주장 ③ 사건 ④ 과의존 ⑤ 뇌 발달
⑥ 패스트 패션

01 ② 02 나, 다 03 ③ 04 ① 05 ⑤ 06 스
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수면 시간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과
창의력이 저하된다. 07 ② 08 ① 09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고, 수자원의 오염과 낭비가
발생하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10 ⑤ 11 ③
12 ④ 13 ㉠은 농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이지
만, 스님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존재이다.

- 01 (다)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경 회로는 연결이 강화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신경 회로는 연결이 약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경 회로는 한 번 연결되면 약화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다)에서 여가 시간에 독서하는 사람과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영상 시청을 하는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나). 또한, (나)에서 성평등가족주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다).
- | 오답 풀이 |** 가. 이 글에서는 유사한 상황에 비유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쉽게 설명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이 글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 03 ㉠은 스마트폰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이고, ㉡은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뇌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문장이다. 따라서 ㉠과 ㉡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둘 중 하나를 삭제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4 ㉠은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개될 것임을 알려 준다.
- 05 (가)에서 제시한 실험 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의존도와 뇌의 사고 능력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의 중심 내용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의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이다.
- 06 (나)에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 부족을 일으키고, 이는 뇌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고 창의력을 높이는 과정을 방해하여 기억력과 창의력이 떨어지게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07 글을 요약할 때에는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에 따라 주요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 중요하다. 각 문단의 내용을 동일한 비중으로 포함하는 것은 요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요약은 중심 내용을 명확히 드러내고, 덜 중요한 내용이나 반복되는 예시 등을 생략하며, 중요한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각 문단의 내용을 동일한 비중으로 포함하는 것은 요약하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08 (다)에서 의류를 생산할 때 필요한 물의 양과 한 사람이 10.5년 동안 마시는 물의 양을 비교하여 수자원 낭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09 (나)와 (다)는 모두 의류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다. (나)는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탄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는 의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자원의 오염과 많은 양의 물 사용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0 (가)에서 패스트 패션 업체는 다양한 품목의 옷을 소량 생산하여 상품을 빠르게 회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다양한 품목의 옷을 소량 생산하며, ㉡은 이와 반대의 특성을 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패스트 푸드는 조리 시간이 짧다고 하였으며, 패스트 패션도 최신 유행에 맞추어 빠르게 생산된다고 하였다.
 ② 패스트 푸드는 값이 비교적 저렴하다고 하였으며, 패스트 패션은 저렴하게 판매되는 옷이라고 하였다.
 ③ 패스트 패션은 일반적인 의류 업체와 달리 보통 1~2주 만에 새로운 옷을 생산한다고 하였다.
 ④ 패스트 패션은 일반적인 의류 업체와 달리 다양한 품목의 옷을 소량 생산하여 빠르게 회전시키므로 업체는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11 (나)에서 비가 내릴지, 내리지 않을지에 관한 내기에 스님은 동냥한 쌀을, 농부는 소를 걸기로 하였다.

12 농부는 농부대로 오랜 경험이 있는지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스님은 늘 땀(소금)에 젖어 있는 장삼을 만졌을 때 몹시 눅눅했으므로 공기 중에 물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3 (라)에서 스님은 ㉠은 농사 짓는 데 요긴한 것이므로 농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이지만,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존재라고 하였다. 그래서 스님은 내기에서 이겼음에도 농부에게 소를 도로 주었다.

(0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본책 16~19쪽

- ① 계획 ② 매체 ③ 개요 ④ 고쳐쓰기 ⑤ 객관적
⑥ 삭제

- 01 ⑤ 02 ① 03 ④ 04 ⑤ 05 ① 06 ③
07 (마), 너비아니 자체에 대한 정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제
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다. 08 ② 09 ③ 10 ③
11 ② 12 ② 13 ④ 14 이에 비해 너비아니를 전통적
인 방식 그대로 즐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5 ②

- 01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예상 독자의 흥미를 끄는 내용이
라도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2 서연은 본격적인 글을 쓰기 이전에 글의 주제와 예상 독자 등
을 고려하여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서연
의 말과 관련된 글쓰기 단계는 ‘계획하기’이다.
- 03 너비아니를 비롯한 한식이 외국의 음식보다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에 가까우며, 한국의 전통 음식인 너비아
니를 소개하는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 오답 풀이 | ① 외국인에게 너비아니를 소개하며 한국 전통 음
식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외국인들이 이 글의 중심 소재인 너비아니에 대해 얼마나 알
고 있는지 미리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외국인은 우리 학교 학생들보다 한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을 쓸 때보다
더 쉽고 자세하게 서술해야겠다는 것은 적절하다.
⑤ 외국인을 대상으로 글을 쓸 때, 너비아니를 예상 독자인 외
국인이 잘 아는 음식과 비교하는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04 (가)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중학교 학생들 중, 너비
아니에 대해 아는 학생들은 26명, 신선로에 대해 아는 학생들
은 13명이다. 따라서 신선로보다 너비아니에 대해 아는 학생
들이 더 많다.
- 05 (가)는 전통 음식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
여 주는 자료로, 너비아니의 낮은 인지도를 설명하기에 적합
하다. 따라서 글의 ‘처음’ 부분에 활용하여 글의 중심 소재인
너비아니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글의 목
적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 06 (다)는 소고기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너비아니의 주제
료인 소고기의 영양 정보를 설명하는 자료로 소고기가 아이들
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철분, 아연, 단백질 등의
효능을 강조하고 있다.

- 07 이 글에 제시된 자료 중, ‘너비아니’를 소개하는 주제에서 벗
어난 정보는 ‘경복궁 별빛 야행 축제’에 대해 소개하는 (마)이
다. (마)에서 너비아니를 포함한 다양한 궁중 음식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너비아니를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축제 체험
을 소개하는 내용의 일부분이다.
- 08 글쓰기 계획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
는 ‘내용 조직하기’이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수집한 자
료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맞지만, 수집한 자료를 모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글의 목적과 흐름에 맞게 선별하
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09 ‘중간 2’는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으
로, 글쓴이가 떠올렸을 생각은 너비아니를 만들 때 필요한 재
료와 너비아니를 조리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
어야 한다. 그러나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이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는 내용은 개요에 없으므로, 글쓴이가 이와 관련한 생
각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 10 <보기>의 자료는 너비아니의 조리 과정을 담은 영상으로, 너
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중간
-2-나’(너비아니의 요리 순서)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11 <보기>에서 서연은 너비아니의 유래, 만드는 방법, 가치 등을
소개하겠다고 계획했다. 또한 ㉠은 ‘너비아니라는 이름의 유
래’와 ‘너비아니와 관련된 기록’이 포함된 항목이므로, 역사적
인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 12 이 글은 우리가 잘 모르는 전통 음식 중 하나인 너비아니를 소
개하면서 그 가치를 되새겨 보고자 쓴 글이다.
- 13 이 글에서 너비아니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전문가의 인터뷰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제목에 ‘너도 아니?’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② (마)에서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나)에서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제
시하여 설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⑤ (가)에서 전통 음식 인지도 설문 조사를 제시하여 이 글의 주
제를 설정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다.
- 14 (라)에서는 너비아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 개발 사례를 소개
하며,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변형하는 흐름을 강조하고 있
다. 그러나 “이에 비해 ~ 목소리도 있다.”라는 문장은 이러한
흐름과 대조되는 의견을 제시하여 글의 일관성을 깨뜨린다.
- 15 주제를 직접 드러내는 제목보다 너비아니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으로 수정한 것이다.

3 세상을 담는 언어, 우리를 잇는 매체

(01. 품사로 빚어낸 세상)

본책 20~23쪽

- ① 형태 ② 역할 ③ 이름 ④ 수사 ⑤ 관계
⑥ 수식어 ⑦ 체언 ⑧ 감탄사 ⑨ 움직임

- 01 ⑤ 02 ④ 03 ④ 04 ③ 05 ④ 06 대명사,
글의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07 ⑤ 08 ②
09 밑줄 친 단어는 수사로,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며 문장의 몸통 역할을 한다. 10 ③ 11 보다, 즐겁다,
떠오르다 12 ⑤ 13 ① 14 ③ 15 ④ 16 ⑤
17 ㉠: 조사, ㉡: 부사 18 ④ 19 ② 20 ① 21 ④
22 ⑤ 23 ⑤ 24 ③

- 01 기능에 따라 품사를 분류하면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 조사 ‘이
다’는 관계언이다.
- 02 ‘고양이’, ‘어제’, ‘하루’는 명사, ‘모든’은 관형사, ‘도대체’는 부
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반면, ‘앞드리
다’, ‘뿔다’는 동사, ‘상쾌하다’, ‘얕다’는 형용사로, 문장에서 쓰
일 때 형태가 변한다.
- 03 ‘영화’, ‘혼자’, ‘한테’, ‘어떤’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마시다’와 ‘출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마시고, 마시
니’, ‘출고, 추우니’ 등과 같이 형태가 변한다.
- 04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체언이다. ‘우리’는 대명사, ‘사
랑’은 명사, ‘서넛’은 수사로 모두 체언에 속한다.
- 05 ㉠ ‘저기’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
키는 대명사이다.
- 06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돈이 많거나 여러 가지 크고 거창한
꿈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대명사를 사용하면 같
은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아 글의 내용이 간결해진다.
- 07 ㉠ ‘저기’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곳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학교 근처에 새로 생긴 건물 지하에 있는 서점’을 의미한다.
- 08 ①, ③, ④의 ‘열다섯’, ‘셋’,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
고, ⑤의 ‘둘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②의 ‘한’은 뒤
에 오는 체언 ‘번’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 09 ‘둘’은 수사로, 체언에 속한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
적어 등으로 쓰이며 문장의 몸통 역할을 하는 품사이다.
- 10 밑줄 친 단어는 모두 용언에 속한다.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얹매
이지 않는 품사는 독립언이다.

- 11 용언은 문장에서 주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등을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품사로, 동사 ‘보니(보다)’, ‘떠올랐다(떠오르다)’
와 형용사 ‘즐거움(즐겁다)’이 이에 해당한다.
- 12 ① ‘바라던(바라다)’, ② ‘산(사다)’, ③ ‘오를(오르다)’, ④ ‘시
켰다(시키다)’는 모두 동사이다. 반면, ⑤ ‘낫더라(낫다)’는 ‘보
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 13 형용사는 어간에 현재형 어미 ‘-는다/-다’,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넓
자’, ‘용감해라’는 적절하지 않다.
- 14 관계언은 단어로 인정되지만 자립하여 쓸 수 없고, 반드시 다
른 말에 붙어서 쓰인다. 따라서 관계언이 자립하여 쓰일 수 있
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5 제시된 문장에서 ‘는’, ‘에’, ‘에서’, ‘와’, ‘를’, ‘로’가 조사로 쓰였
다. 따라서 조사는 총 6개이다.
- 16 ⑤에 사용된 조사 ‘에게’, ‘를’은 모두 앞말이 일정한 자격을 갖
도록 하는 격 조사이다.
- 17 ㉠ ‘같이’는 체언 뒤에 붙어서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 ‘같이’는 뒤에 나오
는 용언 ‘먹읍시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18 ‘아무런’은 체언 ‘말’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문장에서 용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수식하는 품사는 부사이다.
- 19 ① ‘바로’, ③ ‘가장’, ④ ‘매우’, ⑤ ‘과연’은 모두 부사이다. 반
면 ② ‘온’은 뒤에 오는 체언 ‘거리’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20 ㉠ ‘현’은 뒤에 오는 체언 ‘신발’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
‘열심히’는 뒤에 오는 용언 ‘달려서’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21 감탄사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
타내는 품사이다. ④ ‘추억’은 명사에 해당한다.
- 22 ㉠ ‘찾습니다(차다)’는 ‘일정한 공간에 사람, 사물, 냄새 등이
더 들어갈 수 없이 가득하게 되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다.
- 23 ‘아주’는 뒤에 오는 용언 ‘가늘게’를 꾸며 주는 부사이며, ‘가늘
게’는 ‘가늘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 24 ㉠ ‘이지’는 조사 ‘이다’가 활용한 형태이다.
| 오답 풀이 | ① ㉠ ‘이’는 체언 ‘영상’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② ㉡ ‘응’은 감탄사로, 말하는 사람의 대답을 나타낸다.
④ ㉠ ‘예쁜’은 ‘예쁘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⑤ ㉠ ‘좋은’의 기본형은 ‘좋다’로, 형용사이다.

(02. 상호 작용적 매체와 소통)

본책 24~27쪽

- ① 쌍방향 ② 실시간 ③ 누리집 ④ 공적 ⑤ 개방적
⑥ 맥락 ⑦ 소통 공간

01 ② 02 ② 03 ③ 04 맥락, 목적, 공간, 참여자
05 ③ 06 ② 07 (가)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과 소통하고,
(다)는 친분이 없는 불특정 다수와 소통한다. 08 ④ 09 (가)
는 행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적인 목적의 글이고, (나)는
정보 전달을 포함하나 주로 사적인 대화이다. 10 ③ 11 ③
12 (가): 누리집, (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13 ① 14 ⑤
15 ③ 16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공간에 사적인 내용을
게시하였으므로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17 ③

01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하면 공간의 제약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다.

02 누리집은 단체의 업무, 홍보와 관련된 내용 등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으로, <보기>와 같은 특성을 지닌 매체이다.

03 온라인 대화방은 주로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상대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범위인 사람들 또는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기에 적절한 매체이다.

04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맥락'(공적인 맥락인가, 사적인 맥락인가?), '목적'(의사소통의 목적에 적합한 매체인가?), '공간'(소통 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소통 방식을 사용하였는가?), '참여자'(의사소통의 참여자나 수용자를 고려하였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05 (가)는 온라인 대화방,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다)는 누리집으로, 모두 상호 작용적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상호 작용적 매체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문자, 사진,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다.

06 (가)에서 수아는 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혼자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목격한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상대가 대화 내용을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나, 상대가 대화를 확인한 정확한 시각은 알 수 없다.

③ (나)에서 해시태그 기능을 활용할 때 '#' 기호 바로 뒤에 붙은 단어만 해시태그로 인식되기 때문에, 단어를 모두 붙이는 것이다.

④ (다)는 문서를 첨부하여 불특정 다수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가)와 달리 (나), (다)는 댓글을 작성하여 소통할 수 있다.

07 (가)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정민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 수아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다)는 유기견 보호와 관련한 공식 누리집으로, 친분이 없는 불특정 다수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08 (가)는 학교 누리집, (나)는 단체 온라인 대화방이다. (나)에서는 친밀한 관계의 친구들이 'ㅎㅎ'와 같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여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으나, (가)는 공적인 내용을 담은 글이므로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09 (가)는 학교 누리집의 게시 글로,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적인 목적의 글이다. 반면, (나)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정보 전달을 포함하나, 주로 친밀한 관계의 친구들이 나누는 사적인 대화이다.

10 (가)에서 조회 수를 통해 게시 글에 대한 관심도는 알 수 있으나, 누가 게시 글을 읽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11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대화방의 '그림말' 기능이다. 그림말은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느낌이나 감정을 문자 대신 간단하게 전달하여 상대방의 이해를 도우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12 (가)는 학교 누리집의 공지 사항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고,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이다.

13 (가)는 누리집으로, 특정 사람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공적인 성격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좋다.

| 오답 풀이 | ② (가)에서 게시 글을 읽은 사람들이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댓글을 작성하여 소통하고 있다.

③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를 눌러 게시 글에 대한 반응을 남길 수 있다.

14 (가), (나)와 같이 공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할 때에는 단체나 기관의 이름으로 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

15 (가)는 공적인 성격의 소통 공간에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줄임말이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과 같이 적합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료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16 (나)에서 하준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친구와 개인적으로 다룬 일을 언급하였으므로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17 (나)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글, 사진, 동영상, 해시태그 등을 활용하여 소통하기에 적합한 매체이다. 따라서 여행지에서의 경험을 사진, 동영상 등을 함께 게시하여 여행지에 대한 감상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다.

4 갈등을 푸는 지혜

(01. 문학과 갈등)

본책 28~31쪽

- ① 정직 ② 외적 ③ 양심 ④ 삼촌 ⑤ 수만
⑥ 죄책감 ⑦ 하늘

01 ④ 02 ⑤ 03 ② 04 ② 05 ① 06 ①
07 ③ 08 ⑤ 09 ① 10 ㉠: 양심의 가책(죄책감), ㉡:
합리화(회피) 11 ② 12 ① 13 ③ 14 이 글에서
'하늘'은 깨끗한 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기는 죄책감으로 인
해 하늘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삼촌에게 모든 잘못을 고백한
후 양심을 회복하여 몇몇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

- 01 문기가 고깃간에서 고기를 사고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일
은 앞으로 문기가 겪는 다양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 02 (다)에서 문기는 삼촌의 훈계를 들은 후 혼자가 되자,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
고 있다. 따라서 문기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는 설
명은 적절하지 않다.
- | 오답 풀이 |** ① (라)~(마)에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던 문
기는 공과 쌍안경을 버린 후 후련함을 느낀다.
② (나)에서 문기는 수만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하면 자기 책임
은 없다고 합리화하면서 수만과 함께 돈을 쓰기로 하였다.
③ (가)에서 문기는 며칠 전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깃간에 고기
를 사러 갔다.
④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문기는 (라)에서
흐르는 물 위로 공을 던져 버리며 죄책감을 덜고자 하였다.
- 03 (나)에서 '으스스한 골목을 걸을 때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
슴이 두근거렸으나 밝은 큰 행길로 나오자 차차 다른 기쁨으
로 변했다.'에서 처음에는 남의 돈을 쓴다는 망설임이 있었으
나 갖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문기의 심리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 04 (가)에서 문기는 며칠 전 고깃간 주인에게 거스름돈을 더 받은
일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이 일은 앞으로 문기가 겪게 될
갈등의 시작점이 된다.
- 05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괴로워하던 문기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나머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다.
- 06 문기는 일 원짜리로 알고 고깃간 주인에게 돈을 내밀었으나,
거스름돈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 어리둥절하였다. 즉 ㉠은 거
스름돈을 제대로 받은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 모습을 나타
낼 뿐, 문기가 고깃간 주인이 거스름돈을 잘못 준 것을 알면서
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아니다.

07 문기는 수만의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으로 보아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
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수만은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기를 괴롭히는 모습에서 영악하고 계산
적임을 알 수 있다.

08 처음에 문기와 수만은 함께 어울리며 잘못 받은 거스름돈으로
사고 싶은 것들을 산다. 그러나 삼촌에게 훈계를 듣고 잘못을
반성한 문기가 더 이상 양심을 속이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돈을 내놓지 않자, 수만은 문기를 괴롭히게 된다.

09 ㉠은 문기가 저지른 두 번째 잘못으로, 수만의 협박에서 벗어
나기 위해 불장 안에 있던 숙모의 돈을 훔친 일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 ㉡. 문기가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줌으로써 문
기와 수만 사이의 갈등은 해소된다.
㉢. 이 글에서 숙모와 문기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줌으로써 문기의 내적 갈등은 더
욱 심화된다. 이에 문기는 밥도 덜 먹고 물건도 아껴 쓰면서
훔친 만큼 갚으면 그만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죄
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11 (가)에서 문기는 점순이 자신 대신 누명을 쓰고 쫓겨나자 양심
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이러한 문기의 죄책감은 (나)와
(다)에서 더욱 고조되고, 결국 (라)에서 문기는 삼촌에게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나서야 마음이 가벼워진다.

12 이 소설은 문기가 양심을 되찾아 갈등을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은 시
련을 겪은 후 더욱 단단해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으로, 문기의 변화와 이로 인한 성장을 잘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②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도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
다는 의미이다.
③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예전에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
지 못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말이다.
④ 서로 다른 의견이 너무 많아서 결정을 내리기 힘들 때 쓰는
말이다.
⑤ 아무리 어려운 일에 부딪쳐도 살아 나갈 희망은 반드시 있다
는 의미이다.

13 ㉠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별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여기는 문기의 반성적 태도가 드러난다.

14 이 글에서 '하늘'은 맑고 깨끗한 마음, 양심, 부끄러움과 죄책
감이 없는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다)에서 문기는 양심의 가
책으로 인해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으나, (라)에서 삼촌에게
모든 잘못을 고백한 후 문기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면서 문기
는 비로소 맑은 하늘을 몇몇이 쳐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02. 토의하기)

본책 32~35쪽

① 협력적 ② 사회자 ③ 제안 ④ 청중 ⑤ 최선
⑥ 근거

01 ③ 02 ③ 03 ⑤ 04 ⑤ 05 ① 06 ④
07 ① 08 경험 09 ② 10 ④ 11 좋은 생각입
니다. 12 ② 13 ④

01 이 토의는 패널 토의로, 청중은 토의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는 없지만 토의자들 간의 의견 교환이 끝난 후, 토의 내용과 관련 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서 참여할 수 있다.

02 (다)에서 은우는 수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학교에 선착순으 로 자리를 정하자고 했을 뿐, 선착순이 공평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서연은 수업 시간에는 짝이나 모둠이 함께하는 활동이 많으므로 가까운 사이와 함께 앉는 것이 효율 적이라고 하였다.

② (다)에서 은우는 앞자리일 때 수업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뒷자리에 앉을 때 집중력이 높아지는 사람도 있으므로 선 착순으로 앉자고 제안하였다.

④ (라)에서 지아는 어떤 기준으로 자리를 정하든 불편을 느끼 거나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였다.

⑤ (마)에서 지아는 친한 친구와 같이 앉으면 떠들게 되어 수업 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하였다.

03 이 토의에서 민준(사회자)은 토의를 하게 된 배경과 함께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 방식과 절차를 안내하면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04 (바)에서 지아는 은우의 질문에 답하고 있으나, 특정 용어의 뜻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서연은 요즘 수업 시간에 짝이나 모둠 이 함께하는 활동이 많다는 배경을 제시하면서,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을 때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② (다)에서 은우는 선착순의 방식을 먼저 제시한 후, 수업의 효 율성을 고려하여 학교에 온 순서대로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앉 는 것이라는 보충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③ (라)에서 지아는 서연과 은우의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말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마)에서 지아는 서연의 제안에 대해 친한 친구와 같이 앉으 면 수업 시간에도 떠들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때, 다 른 토의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서연에게 질문하고 있다.

05 (나)는 토의자의 제안 단계로, 토의자인 서연은 근거를 들어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자고 제안하고 있다. (마)는 토의자 간 의견 교환 단계로, 지아는 서연의 의견에 문제를 제 기하고, 서연은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06 (다)에서 은우는 수업의 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율성을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07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의 사소통 과정이므로 ①과 같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는 것 은 토의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 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은 토론이다.

08 (가)에서 지아는 친한 친구와 짝이 되었을 때 서로 말을 걸게 되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경험을, 서연은 가까운 친 구와 앉았을 때 학교생활이 즐거워졌던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다.

09 ㉠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방해가 된다. ㉡과 내용은 동일하되, 다른 사 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예의 바른 태도로 말한 것은 ㉢이다.

10 (다)에서 지아는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특정한 자리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유찬의 질문에 직접 답하고 있으며, 다른 토의자 에게 답변을 부탁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서연은 은서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친한 친구끼리 앉을 경우 마음을 다치는 친구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제안을 철회하고 있다.

② (나)에서 청중인 하윤은 은우의 제안에 대해 선착순으로 자 리를 정하면 대부분의 학생이 선호하는 자리를 일찍 오는 특정 학생들만 계속 앉게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③ (다)에서 서연은 추첨으로 자리를 정할 경우 자리를 일정 기 간마다 바꾸어 학생의 불편함이나 불만을 해소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지아의 의견을 보완하고 있다.

⑤ (라)에서 민준(사회자)은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기로 했다는 토의 결과를 요약하고, 다음 토의에서 다룰 내용을 안내하면서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11 (다)에서 “좋은 생각입니다.”라는 서연의 말은 다른 사람의 의 견을 수용하는 발언으로, 다른 토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협 력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12 (가)에서 서연은 은서의 질문에 대해 같이 앉고 싶은 친구가 없는 경우 선생님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대안을 제시하 고 있다. 따라서 은서는 서연에게 친한 친구끼리 앉을 때 같이 앉고 싶은 친구가 없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13 (라)에서 민준(사회자)의 말을 통해 자리를 추첨할 때 고려해 야 할 점이나 자리를 추첨하는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시간에 토의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해력을 높이는 문제집

1 문학과 삶에서 만나는 의미

(01. 운율, 비유, 상징의 즐거움)

본책 39쪽

- 01 ㉠ 02 ㉡ 03 ㉢ 04 참신하다 05 막연하다
06 구체적 07 ㉣ 08 ㉤ 09 ㉥ 10 우러러
11 증명하기 12 형성하며

- 02 '운율'은 '시문(詩文)의 음성적 형식. 음의 강약, 장단, 고저 또는 동음이나 유음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이 시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와 같이 쓰인다.
- 04 '진부하다'는 '사상, 표현, 행동 등이 낡아서 새롭지 못하다.'라는 뜻이다.
- 05 '명확하다'는 '명백하고 확실하다.'라는 뜻이다.
- 06 '추상적'은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다.
- 11 제시된 문장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맥락으로, '어떤 상황이나 판단 등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다.'라는 뜻의 '증명하기'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추론하며듣기)

본책 41쪽

- 01 ㉡ 02 ㉢ 03 ㉣ 04 연설 05 설득
06 자책감 07 ㉤ 08 ㉥ 09 ㉦ 10 명확하다
11 가치관 12 본격적

- 01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는 뜻으로, '같은 영화라도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와 같이 쓰인다.
- 04 '독백'은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행위. 또는 그런 대사.'라는 뜻이다.
- 05 '설명'은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이라는 뜻이다.
- 06 '자만심'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 12 제시된 문장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맥락으로, '제 궤도에 올라 제격에 맞게 적극적인.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의 '본격적'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2 정보를 판단하는 힘

(01. 요약하며 읽기)

본책 43쪽

- 01 ㉡ 02 ㉢ 03 ㉣ 04 일방적 05 지향하다
06 영향 07 ㉤ 08 ㉥ 09 ㉦ 10 유발할
11 대두되었다 12 일반화

- 01 '구조'는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열개.'라는 뜻으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와 같이 쓰인다.
- 03 '파악하다'는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알다.'라는 뜻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와 같이 쓰인다.
- 04 '확정적'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정하여진.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다.
- 05 '지향하다'는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이다.
- 06 '무효'는 '보람이나 효과가 없음.'이라는 뜻이다.
- 10 제시된 문장은 잘못된 정보가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맥락으로,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하다.'라는 뜻의 '유발할'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본책 45쪽

- 01 ㉡ 02 ㉢ 03 ㉣ 04 두루 05 생성하다
06 은은하다 07 ㉤ 08 ㉥ 09 ㉦ 10 관여하고
11 해소할 12 구조화

- 01 '여부'는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이라는 뜻으로, '그 일의 성공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와 같이 쓰인다.
- 04 '일부'는 '한 부분. 또는 전체를 여럿으로 나눈 얼마.'라는 뜻이다.
- 05 '소멸하다'는 '사라져 없어지다.'라는 뜻이다.
- 06 '명백하다'는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하다.'라는 뜻이다.
- 10 제시된 문장은 회사가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맥락으로,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라는 뜻의 '관여하고'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1 제시된 문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풀리지 않았던 의문점을 해결하였다는 맥락으로,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해 없애 버리다.'의 '해소할'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3 세상을 담은 언어, 우리를 잇는 매체

(01. 품사로 빚어낸 세상)

본책 47쪽

- 01 ㉠ 02 ㉡ 03 ㉢ 04 거창하다 05 어미
06 갈래 07 ㉣ 08 ㉤ 09 ㉥ 10 성질
11 비로소 12 엮매이지

- 01 '청유'는 '어떠한 행동 등을 같이 할 것을 요청함. 또는 그런 일.'이라는 뜻으로, '나는 그녀의 청유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와 같이 쓰인다.
- 04 '사소하다'는 '보잘것없이 작거나 적다.'라는 뜻이다.
- 10 제시된 문장은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뜻의 '성질'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1 제시된 문장은 친구와 화해를 한 후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맥락으로,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의 '비로소'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2 제시된 문장은 관습에서 벗어난 사고방식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때 도움이 된다는 맥락으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몹시 구속되다.'라는 뜻의 '엮매이지'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상호 작용적 매체와 소통)

본책 49쪽

- 01 ㉠ 02 ㉡ 03 ㉢ 04 공적 05 맥락
06 건의하다 07 ㉣ 08 ㉤ 09 ㉥ 10 공유하고
11 소통 12 활용하여

- 03 '상호 작용'은 '생물체 부분들의 기능 사이나, 생물체의 한 부분의 기능과 개체의 기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작용'이라는 뜻으로, '또래 친구와의 상호 작용은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와 같이 쓰인다.
- 10 제시된 문장은 기쁨의 감정을 모든 국민과 나누고 싶다는 맥락으로, '정보나 의견, 감정 등을 나누다.'라는 뜻의 '공유하고'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2 제시된 문장은 그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맥락으로, '도구나 물건 등을 충분히 잘 이용하다.'를 뜻하는 '활용하여'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4 갈등을 푸는 지혜

(01. 문학과 갈등)

본책 51쪽

- 01 ㉠ 02 ㉡ 03 ㉢ 04 모조리 05 착수하다
06 성화 07 ㉣ 08 ㉤ 09 ㉥ 10 차츰
11 공감하였다 12 우쭐거리고

- 05 '중단하다'는 '중도에서 끊다.'라는 뜻이다.
- 06 '안도감'은 '안심이 되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 10 제시된 문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날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는 맥락으로, '어떤 사물의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조금씩 진행되는 모양.'이라는 뜻의 '차츰'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1 제시된 문장은 그가 소설의 결말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슬픔에 대해 자신도 그렇게 느꼈다는 맥락으로,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등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다.'라는 뜻의 '공감하였다'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2 제시된 문장은 친구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고 으스스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맥락으로, '의기양양하여 자꾸 뽐내다'라는 뜻의 '우쭐거리고'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토의하기)

본책 53쪽

- 01 ㉠ 02 ㉡ 03 ㉢ 04 미처 05 마련하다
06 운용 07 ㉣ 08 ㉤ 09 ㉥ 10 바람직하지
11 조정하여 12 토의

- 04 '비록'은 '아무리 그러하더라도.'라는 뜻이다.
- 10 제시된 문장은 그 일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가치가 없다는 맥락으로, '바람직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의 '바람직하지'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1 제시된 문장은 두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혀 협의하였다는 맥락으로,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한다.'라는 뜻의 '조정하여'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2 제시된 문장은 민준과 친구들이 교실에서 자리를 바꾸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맥락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이나 생각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말하기.'라는 뜻의 '토의'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